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인식: Q방법론적 접근

고성희*, 박은아**, 김명애***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The Typology of Gender Role Identity in Middle-aged Women using Q Methodology

Sung-Hee Ko*, Euna Park**, Myung-Ae Kim***

Dept.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Nurs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요약 중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문제를 안고 있다. 성역할정체감은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중년 여성 40명을 P표본으로 하여 40개의 Q표본을 9점 척도 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UANL에 의한 주인자분석법으로 처리되었다.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네 가지로 확인되었다. ‘온정 감성형’은 온순, 세심하고 동정심이 있으며 감정이 풍부하며 낭만적인 것을 좋아한다. ‘온정 소신형’은 이해심과 동정심, 참을성이 있으며 의리와 소신을 가지고 있다. ‘파워 소신형’은 이기심과 의리가 있고 자기주장을 하며 성격이 강하나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 ‘감성 주도형’은 예쁜 물건을 좋아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측면과 함께 의리를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인식의 확인을 통해 생애주기의 발달에 따라 변화된 성역할정체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중년기, 여성, 성, 역할, 정체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our knowledge on gender role identity of middle-aged women within the Korean context. This research adapting Q methodology created a sampling distribution of P with 40 middle-aged women between 40-60 years old. We put each of 40 Q samples to become a forced distribution into 9 scales. And then we conducted a secondary analysis of the results from the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by the PC QUANL program. Gender role identities of middle aged women were classified as four types: "affectionate-sensitive type", "affectionate-confident type", "assertive-confident type", and "sensitive-dominant type". Most of the middle-aged women in Korea tend to keep their original gender role identities. Some of women, however, experience the gender role identity change over time that their traits of traditional caring become more prominent than their affectionate character.

Key Words : Middle-aged, Women, Gender, Role, Identity

Received 1 April 2014, Revised 27 May 2014
Accepted 20 June 2014
Corresponding Author: Myung-Ae Kim(Keimyung University)
Email: nurkma@km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중년기란 생의 오후(the afternoon of life)에 해당하는 시기로, 생의 초기와는 확연히 다른 발달과정상의 특성과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생의 저녁녘(the evening of life)이라 할 수 있는 노년기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적응과 도전이라는 과제가 부여되는 시기이다[1]. 발달심리학자인 Havighurst[2]는 중년기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절정에 달하며, 동시에 노화에 따른 생리학적 변화도 느끼는 시기로 간주하였다. 중년기는 40-60세 사이의 삶의 기간으로[3-4],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와 비교하여 제2의 사춘기 또는 사추기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생리 및 심리사회적 변화와 그에 대한 적응이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중년기 여성의 경우,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빈 등우리 기간의 연장, 여성의 고등교육의 보편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여가 증대 등의 요인으로 과거와는 다른 중년기를 맞고 있다[5]. 더욱이 오늘날의 여성들은 높은 교육수준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과거처럼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이분화된 범주에서만 고려하거나 남성에게는 남성성만을 여성에게는 여성성만을 강조한다면, 성역할에 대한 심한 갈등을 경험할 것이므로 새로운 역할 수행에 필요한 성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6].

성역할정체감은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남성적 또는 여성적 성격특성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7].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의 사고와 행위 및 적응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8]. 대부분의 성역할정체감 연구는 청년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9-11]. 청년기에 형성된 성역할정체감을 중년이나 노년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는데 이는 성역할정체감은 생의 전반을 통해서 발달되기 때문이다. Kwak 등[6]은 연구를 통하여 생애 발달 단계에 따라 서로 상이한 성역할 발달을 체험하며, 그들이 체험한 성역할 내용과 그로부터 빛이진 갈등도 상이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 생애에 걸쳐 각 발달단계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상이하므로 성역할 갈등의 강도와 이의 해소방안도 다르다[6]. 뿐만 아니라 성역할정체감이 중년기 여성의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12],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고, 행위 등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성역할정체감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하기에 유용한[3] Q방법론을 적용하여,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의 주관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의 주관적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중년기 여성의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한다.

둘째,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중년기 여성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2 표집방법

2.2.1 Q 표본

성역할정체감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므로[13]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Q모집단은 18세 이상의 성인 및 노인 남자와 여자 총 20명의 대상자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Park 등[11]이 작성한 것이다. 먼저 대상자를 통한 자료 수집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적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단어를 형용사로 통일하여 정리하였다. 추가로 성역할 및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문헌검토를 통해 중복문항을 추려내고 연구 주제에 대해 대표성이 큰 항목들을 중심으로 동의, 비동의 내용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남성성을 나타내는 20개 항목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20개 항목, 총 40개 Q 표본을 선정하였다.

2.2.2 P 표본

P 표본이란 작성된 Q 표본을 읽고 분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응답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Q 표본의 크기를 40명으로 하였다. Q 방법론은 소규모의 P 표본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의 표본수가 Q 분석을 통해 발견한 유형간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14]. 본 연구에서는 P 표본 선정시 학력, 직업, 결혼상태,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년기 여성 40명을 선정하였다.

2.2.3 Q 분류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3월 5일에서 5월 23일까지 이었으며, P 표본들은 주어진 40개의 Q 표본을 읽은 후 자신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주어진 Q 분포도에 강제적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이 동의, 중립, 비동의하는 Q 표본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하게 한 후 각 그룹 별로 가장 동의하는 것(+4)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Q 표본(-4)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그리고 가장 동의하는 Q 표본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Q 표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2.3 Q 소팅 분석 처리

Q 소팅을 끝낸 후 가장 동의하지 않는 Q 표본에는 1점을, 중립에는 5점, 그리고 가장 동의하는 Q 표본에는 9점으로 각각의 Q 표본에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Q 표본에 부여된 점수를 코딩한 후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주요인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료수집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자의에 의한 참여로 연구가 이루어지며 익명이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언제든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중년기 여성은 총 40명으로, 연령범위는 40세에서 55세였으며, 학력은 대졸이 28명, 고졸이 12명이었고, 모두 기혼상태였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33명이었다.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중년기 여성의 인식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Q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총 40명의 대상자 중 유형 1에 속한 사람은 16명, 유형 2에 속한 사람은 18명, 유형 3에 속한 사람은 4명, 유형 4에 속한 사람은 2명으로 분류되었다. 네 개 유형의 아이겐 값은 각각 10.28, 4.59, 2.43이었으며, 각 요인의 설명 변량은 25.72%, 11.48%, 6.08%로 전체 변량의 43.29%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 간 상관관계는 -.39~.36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Eigen Value, Variance, Cumulative Percentage, and Correlation Matrix between Types

Variables	Type1	Type2	Type3	Type4
Eigen value	10.28	4.59	2.43	
Variance (%)	25.72	11.48	6.08	
Cumulative variance	25.72	37.21	43.29	
Correlations between types	Type1	1.000		
	Type2	.36	1.000	
	Type3	.09	.23	1.000
	Type4	.36	.23	-.39

3.1 유형별 특성

3.1.1 유형 1: 온정 감성형

온정 감성형인 유형 1에 속한 대상자들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낭만적인 것을 좋아한다’, ‘온순하다’, ‘세심하다’, ‘동정심이 있다’, ‘의리가 있다’, ‘감정이 풍부하다’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 1이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진술문은 ‘지배적이다’, ‘박력이 있다’, ‘위험을 무릅쓴다’, ‘공격적이다’, ‘야심이 있다’, ‘대범하다’, ‘지도력이 있다’, ‘결정을 쉽게 내린다’, ‘용감하다’ 등이었다. 따라서 유형 1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며,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한다던지 남을 이끌어 가는 것은 불편해 하는 성향이 강한 유형이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온정 감성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2>.

3.1.2 유형 2: 온정 소신형

온정 소신형인 유형 2에 속한 대상자들이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은 ‘소신이 있다’, ‘참을성이 있다’, ‘이해심이 있다’, ‘동정심이 있다’, ‘감정이 풍부하다’, ‘의리가 있다’, ‘낭만적인 것을 좋아한다’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 2가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수다스럽다’, ‘공격적이다’, ‘이기적이다’, ‘지배적이다’, ‘경쟁적이다’, ‘순종적이다’, ‘외모를 중시한다’ 등이었다. 따라서 유형 2는 의리 있게 남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소신 있게 추진해야한다는 성향이 강하였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온정 소신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2>.

3.1.3 유형 3: 파워 소신형

파워 소신형인 유형 3에 속한 대상자들이 가장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은 ‘소신이 있다’, ‘남이 필요한 것을 잘 알아챈다’, ‘독립적이다’, ‘의리가 있다’, ‘자기주장을 한다’, ‘이기적이다’, ‘성격이 강하다’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 3이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위험을 무릅쓴다’, ‘용감하다’, ‘순종적이다’, ‘애교가 있다’, ‘박력이 있다’, ‘상냥하다’, ‘참을성이 있다’, ‘부드럽다’, ‘야심이 있다’ 등이었다. 따라서 유형 3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일을 성취하여 누구보다도 빛나고 싶어 하였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파워 소신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2>.

3.1.4 유형 4: 감성 주도형

감성 주도형인 유형 4에 속한 대상자들이 가장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은 ‘상냥하다’, ‘의리가 있다’, ‘온순하다’, ‘애교가 있다’, ‘추진력이 있다’, ‘예쁜 물건을 좋아한다’, ‘부드럽다’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 4가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성격이 강하다’, ‘이기적이다’, ‘아이를 잘 돌본다’, ‘공격적이다’, ‘과묵하다’, ‘지배적이다’ 등이었다. 따라서 유형 4는 예쁜 것을 좋아하고 애교가 있으며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성향이 강하였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감성 주도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2>.

그 밖에 위에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의 대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진술문은 ‘의리가 있다’였다 <Table 2>.

4. 논의

성역할정체감은 전형적으로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에릭슨은 특히 여성의 경우 삶의 후반기까지 정체감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여[5], 성역할정체감은 중년기 여성의 발달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을 다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네 가지 유형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2> Item Descriptions and Descending Array of Z-scores for Each Type

Types	No	Statements	Z score
Type 1	27	Enjoying romantic things	1.38
	28	Gentle	1.35
	24	Delicate	1.27
	36	Sympathetic	1.26
	11	Faithful	1.18
	21	Affectionate	1.16
	15	Makes decisions easily	-1.08
	1	Acts as a leader	-1.24
	6	Broad- minded	-1.27
	3	Ambitious	-1.27
	2	Aggressive	-1.39
	19	Take risks	-1.74
	12	Forceful	-1.89
	9	Dominant	-2.08
	Type 2	8	Defends own beliefs
29		Patient	1.50
39		Understanding	1.47
36		Sympathetic	1.29
21		Affectionate	1.24
11		Faithful	1.14
27		Enjoying romantic things	1.04
30		Invest in appearance	-1.08
40		Yielding	-1.19
7		Competitive	-1.30
9		Dominant	-1.68
16		Selfish	-1.69
Type 3	2	Aggressive	-1.85
	37	Talkative	-1.95
	8	Defends own beliefs	1.51
	33	Sensitive to the needs of others	1.31
	13	Independent	1.27
	11	Faithful	1.18
	4	Assertive	1.08
	3	Ambitious	-1.04
	38	Tender	-1.16
	29	Patient	-1.33
Type 4	35	Sweet	-1.33
	12	Forceful	-1.33
	23	Charming	-1.37
	40	Yielding	-1.37
	5	Brave	-1.52
	19	Take risks	-2.67

Type 4	35	Sweet	2.11
	11	Faithful	1.35
	28	Gentle	1.35
	23	Charming	1.27
	14	Initiative	1.18
	32	Loving beautiful things	1.18
	9	Dominant	-1.27
	18	Taciturn	-1.27
	2	Aggressive	-1.69
	22	Take care of children	-1.86
	16	Selfish	-2.03
	17	Strong character	-2.11
Consensus	11	Faithful	1.21

중년기 여성에서 나타난 ‘온정 감성형’은 온순, 세심하고 동정심이 있고, 감정이 풍부하며 낭만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거나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펴기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은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간주되어온 측면으로 여성이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며 요구를 받아들여주는 이타주의적인 측면이 남성에 비해 더 강하며[15], 협조적이고 도움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 [16]을 반영한다.

‘온정 소신형’은 이해심과 동정심, 참을성이 있으며 의리와 소신을 가지고 있다. 이들 유형의 대상자들은 타인을 많이 배려하는 한편 자신이 생각한대로 행동하며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하는 측면이 있다. 온정 소신형은 온정적 감성형과 함께 온정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온정 감성형은 음악을 좋아하여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등 낭만적이며 감정이 풍부한 편인데 비해, 온정 소신형은 자기주장 없이 순종적으로 사는 삶 보다는 스스로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진취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파워 소신형’은 이기심과 의리가 있고 자기주장을 하며 성격이 강하나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 자신의 의견을 잘 표명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강하게 주장한다. 그리하여 타인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파워 소신형은 소신을 가장 중시한다는 점에서 온정 소신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파워 소신형은 스스로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며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주장을 위해 합리화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소신

을 걸으며 표출하지 않는 온정 소신형과 구분이 된다. 파워 소신형 여성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측면은 자기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16] 직장 여성 등 사회적 활동이 많은 여성에게 바람직하고 필요한 역할일 수 있다.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정체감 연구에서[8] 남성성 유형을 가진 군이 여성성 유형을 가진 군에 비해서 생의 의미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오히려 여성으로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므로[17]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감성 주도형’은 예쁜 물건을 좋아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측면과 함께 의리를 가지고 추진력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 이들은 표현이 부드럽고 상대방의 감정의 흐름을 잘 읽어내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한다는 점에서 온정 감성형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감성 주도형은 온정 감성형보다 더욱 강한 감성과 애교 있고 상냥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더 감성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16] 이 유형은 여성의 전형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네 가지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포함된 특성들을 종합해보면, 중년기 여성들은 온정적이고 감성적인 성향을 지녔다. 이는 여성은 타인의 안녕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성역할로 내면화한 것이라고[18] 볼 수 있다. 에릭슨도 중년기의 발달과업인 생산성 개념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덕성으로 ‘배려’(care)를 제안하였다. 그의 ‘배려’의 개념에는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care to do)’, ‘누군가를 돌보다(care for)’, 보호와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관리하다(take care of)’, ‘조심하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19]. 특히 한국 사회의 중년 여성들은 강한 부계혈통 중심의 문화 속에서 자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세대이기에[20], 온정적이고 감성적인 돌봄 또는 배려의 속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편, 본 연구에서 중년기 여성들은 온정, 감성적인 성향과 함께 소신 있고 주도적이며 파워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 시기 여성의 삶에 대한 문화에 존재하는 고정관념과는 정반대로, 중년기와 그 이후가 여성의 삶에서 특히 힘을 갖게 하는 시기일 수 있다는 Muhlbaue

와 Chrisler[5]의 주장을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년기 여성들의 특성인 ‘과워’는 전통적인 심리학에서 지배나 통제,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권력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여성주의 심리학자들의 주장처럼 관계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워’는 사람이나 상황 사이의 관계 맥락 내에 존재하며, 여성은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관계 내에서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5]. 대다수의 여성이 40-60세 사이의 중년기 동안 가장 많이 힘을 갖게 되는 반면, 남성은 30-70세 사이에서 가장 많은 힘을 갖게 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5]. 레빈슨은 중년기를 중년으로의 전환기(40-45세), 중년으로의 진입기(45-50세), 50대로의 전환기(50-55세), 중년의 절정기(55-60세)로 구분하고, 각 시기는 고유한 특징과 과제를 갖는다고 주장한 바[4], 추후 중년기의 연령 구분을 더욱 세분화하여 남녀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정상인과 신경증 환자의 성역할정체감을 비교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정상 여성이 신경증 환자에 비해 독립성, 경쟁심, 공격성과 같은 남성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급격한 사회변화로 여성이 남성적인 성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성공적으로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네 집단 모두 현재의 자신보다 더 남성적인 성역할을 갖기 원하고 있었다.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위기감과 우울감은 높아지고 행복감은 낮아져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22]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년 여성들이 남성적인 특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성역할정체감은 생애주기를 거치며 점차 발달되어 간다. 중년기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문제를 안고 있다. 성역할정체감은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

치므로,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고자 Q방법론을 적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네 가지로 확인되었다. ‘온정 감성형’은 온순, 세심하고 동정심이 있으며 감정이 풍부하며 낭만적인 것을 좋아한다. ‘온정 소신형’은 이해심과 동정심, 참을성이 있으며 의리와 소신을 가지고 있다. ‘과워 소신형’은 이기심과 의리가 있고 자기주장을 하며 성격이 강하나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 ‘감성 주도형’은 예쁜 물건을 좋아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측면과 함께 의리를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인식의 확인을 통해 생애주기의 발달에 따라 변화된 성역할정체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추후 중년기의 연령 구분을 더욱 세분화하여 남녀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M. E. Lachman, Development in mid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5, pp. 305-331, 2004.
- [2] R. Havighurst,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Vol. 1, pp. 8-13, 1961. Cited by P. Ryan, B. J. Coughlan, Aging and older adult mental health. New York: Routledge, 2011.
- [3] B. H. Kim, Y. S. Kim, J. E. Choi, H. W. Jeon, Y. Jung, A study on the subjectivity of the meaning of life for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 17, No. 2, pp. 177-187, 2005.
- [4] S. H. Jung, Sociology in middle-aged. Paju: Sallimbooks, 2012.
- [5] V. Muhlbaue, J. C. Chrisler, editors. Psychological perspectives: Women over 50.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7.
- [6] S. G. Kwak, H. S. Jo, H. K. Yoon, The perceived experiences of gender-role development and conflicts at each life stage.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Vol. 21, No. 3, pp. 147-179, 2005.
- [7] S. L. Bem,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Vol. 31, No. 4, pp. 634-643, 1975.
- [8] S. N. Kim, S. O. Choi, K. I. Shin, J. J.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the meaning in life for a matriarch.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8, No. 2, pp. 190-200, 2002.
- [9] M. H. Sung,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typ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5, No. 1, pp. 73-80, 2009.
- [10] K. Y. Jeong, H. S. Kim, J. H. Lee, An analysis of defense styles by gender-role identity and sex in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5, pp. 21-46, 2012.
- [11] E. A. Park, S. H. Ko, M. A. Kim, Understanding the gender role identity among adolescent mal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Vol. 22, pp. 147-160, 2011.
- [12] K. S. Park, M. C. Kim, A study on adjustment of mid-life women: focused on women's attitudes toward the menopause and transitions of sex role identit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9, No. 1, pp. 65-80, 1991.
- [13] J. D. Sinnott, K. Sifren, Gender and aging: Gender differences and gender role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2001.
- [14] H. K. Kim, Q 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books, 2008.
- [15] M. E. Heilman, J. J. Chen, Same behavior, different consequences: Tensions to men's and women's altruistic citizenship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90, pp. 431-441, 2005.
- [16] M. E. Heilman, Gender stereotypes and workplace bia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32, pp. 113-135, 2012.
- [17] W. S. Battle, Women's inhibition of self-advocacy: Avoiding the consequences of gender deviance.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2008.
- [18] J. H. Ha, J. H.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middle-aged fe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6, pp. 2987-3007, 2012.
- [19] S. Y. Han, Meaning and pleasure in elderly. Seoul: Hakjisa, 2000.
- [20] Y. J. Kang, Late middle-aged women's life experiences in transition to old age: How do they adapt to "aging"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2, No. 7, pp. 145-164, 2004.
- [21] G. Anh, J. Y. Choi, Comparison about gender role between middle-aged women with neurosis and normal moo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0, No. 1, pp. 262-268, 1991.
- [22] E. A. Lee. The relationships of the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s gender-role attitud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9, No. 1, pp. 25-42, 2006.

고 성 희(Ko, Sung Hee)



- 198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이학석사)
- 199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이학박사)
- 1982년 4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성역할정체감
- E-Mail : jane@cbnu.ac.kr

박 은 아(Park, Euna)



- 1999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5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역할정체감, 중년기
- E-Mail : soundness@pknu.ac.kr

김 명 애(Kim, Myung Ae)



- 198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역할정체감, Q방법론
- E-Mail : nurkma@kmu.ac.kr